

# 청소년이 읽을 만한 책

## 出協 선정 '이달의 청소년도서' 16종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가 선정하는 '이달의 청소년도서' 90년 12월~91년 3월분으로 다음 16종(18책)의 도서가 뽑혔다.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는 총 1,5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종도서 1종당 300부씩을 구입, 전국 각 지방의 문화원 75곳을 비롯, 청소년 선도기관·소년원·공공도서관 등 300곳에 기증했다. '이달의 청소년도서' 선정위원은 다음과 같다.

▲문학·예술=남미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신상철(아동문학가) ▲과학·기술=현원복(한국과학사회연구소장) ▲종교·철학=이은봉(덕성여대 교수) ▲역사=하현강(연세대 교수) ▲인문·사회=송복(연세대 교수)

### 꿈꾸는 황금사자별

김태영 지음 / 김은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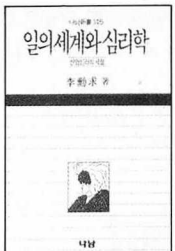
「초록반 아이들」 「아기씨 꽃씨 사랑의 씨」 등의 동화를 발표한 작가가 별자리에 숨겨진 신화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꾸민 동화집.

별의 아름다움에는 감탄하면서 정작 그런 별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는 너무 어려워져 잘 알기 힘들다는 데 착안해 별자리 동화를 쓰게 되었다는 작가는 북쪽하늘의 별자리와 봄·여름·가을·겨울의 별자리로 이야기를 구분해, 큰곰 작은곰자리, 머리털자리, 거문고자리, 물고기자리, 쌍둥이자리 등 별자리에 얽힌 그리스 신화를 재미있게 재구성했다. 어린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만하다. 원색 일러스트도 곁들여졌다.

현암사/A5신/232면/4500원

### 일의 세계와 심리학

이훈구 지음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 저자가 산업 및 조직심리학의 내용을 토대로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간추려 엮은 책.

직장이란 어떤 곳인가, 직장은 노동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며, 올바른 직장을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직장이 주는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취업을 앞둔 사람들에게 좋은 길잡이로 읽히는데, 기업인이나 관리자들에게도

직무배분, 관리자의 효과적인 리더십, 노동자의 직무만족과 사기의 원천 등을 알게끔 한다. 서울대 김형국교수의 '장래의 유망직업'이란 글도 수록됐다.

나남/A5신/300면/5000원

### 보람과 흐름이 있는 삶의 시간

시마사키 도시기 지음 / 신현구 옮김



일본 동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평생을 교육과 연구로 일관한 정신병리학자가 펴낸 「삶이란 무엇인가」의 번역본.

「감정의 세계」란 책을 상재한 바 있는 저자는 그 책이 인생의 봄에 해당하는 찬란한 빛의 세계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삶의 춘추동을 모두 포함하는 시각에서 인생의 개막에서부터 죽음이라는 종막에 이르기까지의 「산다는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려 했다고 서문에서 밝힌다. "오랜 세월에서 우리나라의 심오한 경문과 정신병리학 연구에서 터득한 산다는 보람을 정신적·영감적 측면에서 탐구했으며, 인생의 참뜻을 한계단 높은 곳까지 선명하게 끌어올림을 느낀다"는 것이 역자의 말.

보성사/A5신/226면/3500원

### 키 작은 自由人

이청준 지음



65년 「퇴원」으로 등단한 후 「이어도」 「잃어버린 말을 찾아서」 「당신들의 천국」 등을 발표하며 우리 문단에서 가장 지적인 작품 세계를 추구하는 작가

로 평가받는 작가가 85년에 상재한 「秘火密教」 이후에 쓴 중·단편을 모은 작품집.

이 작품집에 실린 12편의 공통적인 특징은 '나'의 이야기라는 점인데, 이 자기고백적인 토로가 일인칭서술 시점으로 처리되고 있다. 「키 작은 자유인」에서 이청준은 잃어버린 '나'를 찾는 이야기를 통해 진실이야말로 진정한 자아의 모태라는 것과, 문학은 바로 이 진실을 찾는 추구의 노력에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평론가 권오룡씨의 해설.

문학과학지성사/A5신/382면/4500원

### 日本을 다시 본다

매일경제신문사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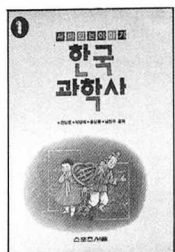
역사적 관계의 뒤틀림으로 인해 바른 시각을 갖기 힘든 대일본관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연중기획물인 이 책은 특히 대일경제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가장 큰 경제대상국인 일본의 경제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외국어대 이종운교수 외 12명의 필자가 동원돼 일본경제의 속과 겉을 찬찬히 훑어보고 있는데, 1부 일본주식회사, 2부 기업자본주의, 3부 하이테크 선단으로 나누어 묶었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성장요인을 경제정책의 일관성, 자본과 분리된 경영, 고급두뇌집단 활용, 기업복지제도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부록으로 필자들의 좌담회도 실었다.

매일경제신문사/A5신/332면/4800원

### 한국과학사 1~3

전상운 외 지음



우리의 슬기로운 조상들이 남긴 과학정신과 그 유산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꾸민 이 책은 모두 세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천문·시계·백제의 상수도관·고구려의 천문도·측우기·자격루 등 선조들의 뛰어난 과학적 사고와 그 증거물들을 재미있고 쉽게 정리한 과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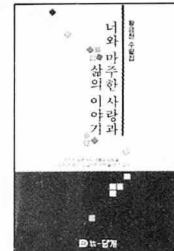
교과서에서 흔히 보게 되는 고유명사의 나열수준에서 벗어나 그 고유명사가 생기게 된

원인과 그 제작시기 그리고 제작방법 등을 설명해 놓고 있는 이 책에는 자연현상을 교묘하게 이용해 충신들을 모략한 간신배들과 서양 과학에 일찍 눈을 학자들의 이야기 등도 '실록'에 근거해 실고 있다.

스포츠서울/A5신/각 200면 내외/각 3000원

### 너와 마주한 사랑과 삶의 이야기

황금찬 지음



「대한민국 문학상」 「월탄 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고 현재는 추계예술대에서 강의 하고 있는 원로 시인이 "살아오면서 듣고 배우고 터득한

삶의 교훈과, 귀를 신선하게 해준 바람소리 같은 말"들을 새겨보기 위해 쓴 수필을 '아직도 못 잊는 너의 음성' '가을여행을 할 일이다' 등 4부로 나누어 묶었다.

문학청년시절에 벗들과 함께 즐겨 찾던 작은 폭포에서 보낸 한여름의 정경과 古談책을 읽어주시며 많은 가르침을 남겨주셨던 시인의 어머니에 대한 회상 등 평생을 시쓰고 읽기 밖에 모르고 살아온 老시인의 순수한 영혼의 그늘을 만날 수 있게끔 한다.

담계/A5신/310면/3500원

### 오늘의 話法

전영우 지음



KBS 아나운서실장을 역임한 저자가 현대생활의 어느 분야에서나 필수조건이라고 불리는 화법을 보다 세련되고 재치있게 할 수 있게끔 꾸민 안내서.

청자는 화자의 인격과 인간관계, 지적인 호소력에 연관되어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화법은 기본적으로 기술이나 재주가 아니라, 인격의 진솔한 표현이라는 기본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표준말과 표준음, 목소리의 크기와 높이, 말할 때의 표정과 동작, 주제와 화제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야기의 순서 정하기, 사회를 잘보는 방법, 토의 토론을 잘하는 방법 등이 상세히 소개돼 있어 좀더 잘 말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만한 책.

창조사/A5신/320면/4500원

## 철학하는 마음

엄정식 지음



비트겐슈타인 연구자로 서강대 철학과 교수인 저자가 “아무나 지닐 수 있고 또 인간이면 누구나 지녀야 하는 당연한 삶의 태도”가 철학하는 마음이라고 전제하고, 그동안 그런 의도에서 썼던 글들을 모아 엮은 수필집.

바람직한 삶을 위해 철학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 책에서는 먼저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다음으로 서로 일사단결하려는 마음과 자기자신을 포함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철학과현실사/A5신/314면/3500원

## 희망은 가시밭길 너머

연인숙 외 지음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한 제1회 KBS 제2라디오 청소년 체험수기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희망은 가시밭길 너머」(연인숙) 외 22편의 입상작품을 한데

모아 수록한 작품집.

세상사를 통해 서로 다른 경험을 한 청소년들의 진실과 참다운 용기가 가득 담긴 이 책에는, 아버지는 가난과 빚만을 유산으로 남겨놓고 돌아가시고 뒤이은 어머니의 가솔로 고통스런 나날을 겪게되는 10대 삼남매의 아픈 기억이 새겨진 대상작품을 비롯해, 가정과 가난 등의 고민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건강한 청소년들의 생활상이 실려 있다.

KBS사업단/B6신/192면/3000원

## 물리이야기

A. 아인슈타인 · L. 인펠트 지음 / 지동섭 옮김



논문집 「상대성 원리」와 강연문 · 편지 등을 모은 「나의 인생관」과 함께 아인슈타인의 저서로 알려진 이 책은 대표적 이론인 상대성 이론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쓴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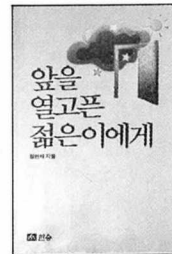
과학적 지식이 충분한 독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서술되었는데, 물리학의 발전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더러, 인류가 자연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는가를 알려준다.

또한 추상화된 관념세계가 자연이라는 현상세계와 어떤 형태로 결합되면서 설명되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한울/A5신/266면/3800원

## 앞을 열고픈 젊은이에게

정현채 지음



경희대 화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가 KBS 제1라디오의 새벽방송 프로그램에서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상대로 한 방송원고 132회분을 실었다.

미국에서 길을 잃었다가 한 친절할 술집주인의 도움으로 길을 찾았던 일화를 통해 청소년기에 흔히 경험하게 되는 실패와 실수가 결코 패배일 수 없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는 등의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서문에서 저자인 정교수는 “청소년이야말로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투자해야 할 우리나라 유일의 개발가능자원인 인재자원”이라고 강조한다.

한승/A5신/290면/3800원

## 형태를 찾아서

최종태 지음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예술가와 역사」를 펴낸 바 있는 저자가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일간지 · 잡지 등에 발표했던 글들을 다듬어

한권의 책으로 엮었다.

‘아름다움의 발견 그리고 창조를 위한 기록’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은 조각가인 저자가 “조각이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며 어떻게 만들 것인가”하는 예술가로서의 고민과 한 인간으로서 느낀 삶의 문제와 생명과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思考한 여러편의 글을 ‘조형예술에의 헌사’와 ‘美的 탐색자들, 그 아름다운 예술혼’ ‘나의 스승 金鍾英’ 편으로 나누어 실었다.

열화당/A5변형/178면/10000원

## 기차길

홍성원 지음



「꿈꾸는 대합실」 「디·데이의 兵村」 등의 장편소설로 잘 알려진 작가가 1·4후퇴를 배경으로 15세에서 17세에 이르는 소년·소녀들의 순진한 눈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그린 작품.

4명의 주인공들이 전쟁의 참화로 인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경험해야만 했던 참담한 일들이 사실적인 묘사와 뛰어난 구성력으로 엮여져 있다.

이 작품은 40년전 그 현장에서 같은 경험을 했던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기도 한데, 간접적으로도 전쟁의 두려움을 느끼기 힘든 요즘 청소년들에게 귀중한 간접경험을 하게 한다.

삼진기획/A5신/284면/3500원

## 우리의 옷이야기

이규태 지음



「한국인의 재발견」 등의 저서에서 우리 문화와 의식구조에 대한 꼼꼼한 지적을 특유의 문체로 굳혀온 저자가 우리 옷의 기원과 재료, 복색과 무늬, 금기

와 습속 등에 대해 쓴 글을 모았다.

삼한시대부터 뽕을 치고 누에를 길러 옷을 짜입었다는 등의 역사적 사실과 무명에 얽힌 이야기, 계급의 권위를 드러냈던 옷색깔, 살갗에 닿는 옷을 물질 이상의 생명체 연장으로 여겼던 우리 민족의 옷에 대한 심성 등을 흥미롭게 써나가고 있다.

저자는 “우리의 의식주문화는 원시적 사머니즘의 심층과 유교문화의 심층, 그리고 서양화된 표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면서 일상속에 스민 민족 고유의 심성을 파헤쳐 보인다.

기린원/A5신/278면/4000원

## 한국여성 그들은 누구인가

김영규 지음



친정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출가한 딸자식이 지어서 읽게 되는 ‘언문제문’을 통해 한국 여인들의 한국 정서를 가늠해 본 이 책은 서강대 국문과

교수인 저자가 「한국인 우리들은 누구인가」에 이어 펴낸 것으로 그동안 민속조사나 답사에서 저자가 직접 수집한 ‘산 냇두리’를 중심으로 해서 엮여져 있다.

출가의외인이라는 유교적 전통 때문에 친정부모의 병간호라든가 임종조차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았던 옛 우리 여인들의 한맺힌 냇두리로부터 시집살이의 서러움과 철저히 남성 위주였던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 그 속에 스며있는 질편한 성문제 등을 추출해내 한국여성의 모습을 비춰보인 저자의 독특한 시각이 특징적이다.

자유문화사/A5신/314면/3800원

## 픽처 북 · 스토리 북 · 표지 디자인

### Publishing Illustration

어린이들만의 그림을 위한 연구실입니다. 아동 도서를 보고 즐기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어린이들만의 그림을 위한 연구실입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의 세계를 보아 오면서 이 시대를 표현하고 미래를 예상하는 풍부한 지식과 상상력이 요구되는 작업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환상적이며 명랑한 미래의 밝은 등불을 가슴 깊이 심어줄 수 있도록 꿈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아 화실  
청아 김벌철

TEL.853-6579

서울 구로구 구로 5동 106-9 미주프라자 5동 404호